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7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누가 하늘(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함)을 보았다 하는가(아무도 하늘을 본 적이 없음, 설의적 표현)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점층적, 반복적 표현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물음을 던짐.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드러냄)

내가 본 건, 먹구름(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구속과 억압의 상황,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극복의 대상)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온 현실)

내가 본 건(반복), 지붕 덮은

쇠 항아리(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구속과 억압의 상황,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극복의 대상),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온 현실, 2연의 변주)

▶ 1-3연 :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부정적인 삶

뒹아라(명령형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날 노력을 촉구함), 사람들아(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민중)

네 마음속 구름(뒹아서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

찢어라(명령형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날 노력을 촉구함), 사람들아, (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민중)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찢어서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 1-2행과 3-4행이 대구를 이룸)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뒹고(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화자가 민중이 바라보고 누리기를 추구하는 대상)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공경과 두려움, 여기서는 삶이 두렵고 엄숙한 것임을 나타냄)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리 찢고(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진정한 하늘을 찾을 때 부정적 현실에서 구원될 수 있음)

마실 수 있는 사람은

▶ 4-6연 :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연민(憐憫)(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냄)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억압된 현실을 견디기 위한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

서럽게(부정적 현실 속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

아 엄숙한 세상(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서럽게

눈물 흘려

▶ 8연 : 부정적 상황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 민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함)

▶ 9연 :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성격 : 참여적, 현실 비판적, 격정적

■ 어조 :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 특징

- ① 대립적 시어를 사용함.
- ② 상징적 수법으로 시적 대상을 나타냄.
- ③ 직설적 표현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④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⑤ 명령적 표현으로 민중의 행동을 촉구함.

■ 제재 : 하늘

■ 주제 :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

■ 구조

- 1-3연 :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부정적인 삶
- 4-6연 :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 7-8연 : 부정적 상황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
- 9연 :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해제

이 시는 당시 민중들이 겪은 역사적, 사회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 번도 진정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 시대의 민중들의 아픔을 알고 이러

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겪어 온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의지를 북돋우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하늘'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핵심 시어로 계속 변화, 반복된다. 작품 속에서 '하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서인데, 이 물음은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 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민족은 구속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인데, '지붕 덮은 쇠향아리'라는 무겁고 답답한 이미지의 표현이 그 구속과 억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깨우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 마음 속 구름'을 닦아 내고 네 머리 덮은 쇠향아리를 찢어 버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인은 우리가 이런 각성의 노력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의 자세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민족에 대한 연민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7
출린 사람 기형도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사회자(이분(그분)의 실체를 미화하여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 권력에 아부하는 자, 타락한 지식인 등을 의미, 권력자에 홀린 채 군중들을 홀리고 있는 인물)가 **외쳤다**(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타적, 도덕적인 사람으로 소개함)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끌거리는 빛이었다(이웃의 슬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소개함)

▶ 1-4행 : 권력가에 대한 소개와 옹호

사회자는 하늘을 걷고 맹세했다(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사소한 것, 대유법) 하나 심지 않았다(사리사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함)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이분(그분)을 과장되게 미화하고 찬양함)

▶ 5-7행 : 권력가에 대한 찬양

사회자는 흐느꼈다(이분(그분)을 소개하며 자신의 감정이 격앙됨, 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이타적인 사람이자 민중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소개함)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이분(그분)을 미화하며 군중들을 선동함)

▶ 8-10행 : 권력에 대한 미화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그분(이분)이 걸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위선적인 모습임)

군중들(권력자에게 기만당하는 우매한 민중)은 일제히(확일성)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맹목적인 추종)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군중들이 그분(이분)에게 현혹되어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

▶ 11-13행 : 대중의 환호를 받는 권력가

그때 누군가(미화된 대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권력)인가('신'을 통해 그분(이분)의 실체가 왜곡되고 미화된 것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질문)

그분은 목소리(비판적인 지식인, 각성한 민중)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권력)인가('유명'을 통해 그분(이분)의 실체가 왜곡되고 미화된 것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질문), 목소리가 물었다

▶ 14-16행 : 권력가의 실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

저 미치광이(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취급받음)를 끌어내(비판이 용납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임),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이성을 상실하고 흥분한 민중)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관용적임을 과시하는 그분의 모습)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그분(이분)에 대한 동조, 반복을 통해 민중들의 우매함과 권력자의 절대성이 강조됨.)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그분(이분)에게 현혹된 우매한 군중)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끝내 실체를 드러내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

▶ 17-22행 : 비판 정신이 배제되는 현실과 우매한 대중의 반응
- 기형도, '홀린 사람'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풍자적, 상징적, 비판적, 서사적

■ 특징

- ① 우화적 기법으로 대상을 풍자함.
- ② 선동가에 의해 대중이 기만당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함.
- ③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실 속의 특정한 사람들을 상징함.
- ④ 극적 상황(인물, 사건)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⑤ 우의적 방식으로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 고발함.
- ⑥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극중 사건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관찰자적 태도를 취함.
- ⑦ 사회자의 행동의 변화 : '외침 → 맹세 → 흐느낌(감동)'으로 아부의 정도가 점점 심화됨

■ 제재 : 지배층의 선동과 기만

■ 주제 : 지배층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과 이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과 풍자

■ 구조

- 1-4행 : 권력가에 대한 소개와 옹호
- 5-7행 : 권력가에 대한 찬양
- 8-10행 : 권력가에 대한 미화
- 11-13행 : 대중의 환호를 받는 권력가
- 14-16행 : 권력가의 실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
- 17-22행 : 비판 정신이 배제되는 현실과 우매한 대중의 반응

■ '홀린 사람'의 중의적 의미

홀리다'라는 말은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남을) 홀리게 하다'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든 '그분'을 주체로 생각할 수 있고, '(남에게) 홀림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사회자를 비롯하여 '그분'에게 감동하며 따르고 있는 '사내와 여인들'을 주체로 생각할 수 있다.

■ 인물의 상징성

- ① 사회자 → 권력자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그 실체를 왜곡하며 그것에 아부하는 선동가
- ② 이분(그분) → 폭력을 통해 국민을 굴복시키는 독재자라기보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교묘한 통치술로 대중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 또는 통치자
- ③ 군중들(사내들, 여인들) →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가의 선동에 이성과 비판을 잃어가는 우매한 대중
- ④ 미치광이(목소리) → 권력자의 교묘하고 부당한 통치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는 의식 있는 지식인

▣ 해제

이 시는 지배층의 위선과 그에 대해 저항할 줄 모르는 무지한 대중을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대중

을 기만하는 사회 속의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여 권력이 어떻게 미화되는지, 그 권력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회자는 권력자를 지지하는 선동가이며, 그에 의해 미화된 '그분'은 자신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자를 통해 시종일관 선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한다. 또한 '군중'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면서 획일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에 반해 '목소리'는 무지한 대중에 동조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나, 물음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미치광이'로 몰려 대중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를 통해 시인은 건전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회, 우매한 대중을 현혹시켜 권력을 강화하려는 사회를 문제 삼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무비판적 현대인의 모습과 전체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시이다. 이 시는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층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과 이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에서 최고 권력자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그를 지지하는 존재에 의해 그의 실체는 왜곡되고 미화되며, 대중들은 이에 기꺼이 현혹되어 이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로 내몰려 그 사회에서 배제된다. 이 시는 과거 독재 시절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배와 자발적인 복종에 대한 풍자로도 볼 수 있다.

흥분한(홀린) 사회자와 흥분한(홀린) 군중들, 그리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분(권력자)은 분명 이 사회의 미친(홀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지배 - 피지배의 교묘한 관계를 구축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 인간은 항상 있는 법이다. 바로 '목소리(미치광이)'의 주인공이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사회야말로 지극히 비도덕적인(미치고 홀린) 사회인 것이다.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 제시가 봉쇄되는 집단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8
종소리 박남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종소리를 의인화한 시적 화자)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종소리를 구속하고 있는 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종소리, 종소리의 확산을 자유로운 새의 비상으로 표현함, 자유의 표상)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종소리)이 되어

하나의 소리(종소리)가 되어.

▶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인종(忍從)(묵묵히 참고 따름. 억압과 구속을 포함함)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1연의 '청동의 표면'과 연결되어 종의 표면 자체를 의미함, 종소리를 구속하는 억압을 의미)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자유로운 종소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에서.

▶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소리

나(종소리)는 바람(종소리 확산의 매개물)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가 된다.

▶ 자유롭고 아름다운 종소리

먹구름(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종소리, 천둥이 칠 때 나는 소리, 부정적 억압에 대한 저항, 자유의 의지)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종소리)이 된다.(종소리의 확산을 통한 자유의 의미 확산,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

▶ 확산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

- 박남수, '종소리'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 성격 : 주지적, 상징적, 역동적, 감각적

■ 어조 : 다소 격양된 남성적 어조

■ 특징

①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함.

③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종소리'로 구체화함.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자유를 향한 비상과 확산을 드러냄.

■ 제재 : 종소리

■ 주제 : 종소리로 환기하는 자유의 확신과 의지

■ 구조

- 1연 :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 2연 :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소리
- 3연 : 자유롭고 아름다운 종소리
- 4연 : 확신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

▣ 해제

이 시는 종소리를 화자인 '나'로 의인화하여, 억압적 현실에서의 오랜 인종 끝에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신념을 바람을 타고 퍼지는 종소리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종소리는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이라는 억압적 현실에 갇혀 있다가 하나의 '울음'과 '소리'가 되어 청동의 표면을 떠난다.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들의 '푸름'과 꽃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천상의 '악기'를 울리게 하여 자유, 해방, 환희를 확산시킨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인 '먹구름'이 깔려도 종소리는 오히려 '뇌성'이 되어 더 넓은 곳으로 흩뿌려진다. 이는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이해와 감상

박남수의 '종소리'는 박남수의 후기 대표작으로 이미지에 의한 표현을 중시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탐구한 주지시다.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확신을 남성적, 역동적 심상으로 노래하였다. 관념의 표상으로 인식되기 쉬운 '종'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도 현대적 지성과 융합된 세련된 통일체를 이루었다.

박남수의 '종소리'는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나'로 설정하고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확신을 노래한 작품이다. 아직 울리기, 전의 종을 무겁고 어두운 감옥 혹은 억압으로 보고, 그 종에서 울려나는 종소리를 자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1연에서는 종소리를 시적 화자인 '나'로 의인화시켜 표현했다. '나는 떠난다'라는 표현은 종소리가 종에서 울려 나가는 모습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종소리는 '나'에서 '새'로, 또 '광막한 하나의 울음'으로, '하나의 소리'로 표현된다. 여기서 '새'는 자유의 표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울음소리로 아득하게 멀리 퍼져나간다. 2연에서는 그 멀리 퍼져 나가는 자유를 이제까지 구속해 온 '인종(忍從)'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청동의 벽 속 칠흑의 감방은 이제까지 자유를 구속해 온 공간이다. 3연에서는 이러한 구속을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펼치는 부분이다. 종소리인 '나'는 '바람을 타고', '푸름'이 되고, '웃음'이 되고, '악기'가 된다. 4연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먹구름'과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꼭지'는 천상의 끝으로, 횡포에 저항하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말인 듯하다. '먹구름'과의 대결 속에서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그것을 이겨 내고 종소리는 곱고 부드러운 소리로 흩어져 퍼진다.

박남수의 시는 본디 사상이나 윤리 같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관념은 깊이 감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참신하고도 낯선 이미지들이다. 이미지가 거느리는 배경이나 언어 표현의 암시성이 그의 시에서는 중요시된다. 이 시도 예외는 아니다. 참신하고 역동적인 심상들이 출렁이고 있다. '나'는 '종소리'를 의인화한 것인 바, 오랜 인종(忍從) 끝에 역사의 질곡을 박차고 나가는 시인의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신념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다.

소리가 청동의 벽에 갇혀 있는 동안, 즉 종이 울리지 않는 동안은 칠흑의 감옥과도 같다고 화자는 말한다. 오랜 인종(忍從) 끝에 '나'는 '진폭의 새'가 되고, '울음'이 되고, '소리'가 되어 청동의 표면을 떠

난다.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들의 '푸름'을 되찾아 주고, 꽃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천상의 '악기'를 울리게 하여 역사의 질곡에 갇힌 세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한다. 소리가 청동의 벽에서 풀려나는 순간 그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 이 시에는 담겨 있다고 하겠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8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이다음에 나(화자)는 고양이(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고양이의 상징적 의미로 드러냄. 윤희 사상)

윤기 잘잘 흐르는(건강한 생명력)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구체화함,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사뿐사뿐(음성 상징어) 뭉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직유법)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구체화함,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나는 뒷마루에서 즐지 않으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인간의 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고양이의 일반적인 생활과 달리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부정 서술어 반복, 의지 강조)

가시덤불 속(야생)을 누벼 누벼(반복, 간절함 강조)

너른 벌판(야생)으로 나가리라.(화자의 의지)

거기서 들쥐(야생의 존재)와 뛰어놀리라.(‘-리라’ 반복)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음성 상징어)

참새 때(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덮치리라.(‘-리라’ 반복)

그들은 놀라 후닥닥(음성 상징어) 달아나겠지.

아하하하(음성 상징어,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

폴짝폴짝(음성 상징어) 뒤따르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 참새를 먹잇감이 아닌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함, ‘-리라’ 반복)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리라’ 반복)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참새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 ‘-리라’ 반복)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포식의 대상이 아닌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지향함, ‘-리라’ 반복)

▶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소망함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자유를 찾으려는 고양이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옴, ‘-겠지’ 반복)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음, 안락한 일상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함.)

어둠을 핥으며 남가리를 찾으리라.(안락한 삶 대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선택, ‘-리라’ 반복)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야생의 삶에서 찾은 안락함, ‘-겠지’ 반복)

홀짝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고단한 삶에 처하더라도 자유를 추구하는 고양이의 고결한 삶을 상징함, '-겠지' 반복)

혹은 거센 바람(잠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 시련)과 함께 찬비(잠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 시련)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활유법)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자유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나는 꿈을 꾸리라.(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자유로운 삶에 대한 의지, 희망적 태도, 도치법)

▶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함.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낭만적

■ 어조 : 의지적인 어조

■ 특징

① 시적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냄.

② 특정한 어미('-리라', '-겠지' 등)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제재 : 고양이

■ 주제 :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

■ 구조

▪ 1연 :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소망함

▪ 2연 :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함.

▣ 이해와 감상

1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인들은 대부분 일상성을 벗어난 이미지로 기억되곤 한다. 우선 일반인들이 기억할 것으로 짐작되는 시인들의 이미지로는 특히나 김수영 류의 썩은 얼굴과 이상 류의 비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천상병 류의 기이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드물게는 박인환 류의 멋쟁이가 있었으나 역시 당대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범주에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성질은 못된다고 본다.

이렇게 시인들의 이미지는 비일상성 속에 있었고,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시인은 뭔가 다르고, 그 '다름'의 하나가 바로 외모나 이미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지금에야 시인들도 너무나 일상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며, 고전적 의미로서의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시인의 이미지는 뭔가 특별한 것으로 기억하던 차였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황인숙 시인의 이미지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범하고 세련됨. '어라~ 전혀 시인 같지 않아'. 이것이 황인숙 시인에 대한 내 첫 느낌이었다. 더구나 '고양이'를 소재로 시를 쓰는 시인이란니... 이런 인식이 그 뒤로 쭉 황인숙 시인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뒤로 황인숙 시인의 초창기 시집을 제외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성실한 독자가 아니었거나 황인숙 시인이 그 뒤로 주목받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둘 모

두일 수도 있었다.

2

근래에 대중가요로<낭만 고양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낭만 고양이 / 체리필터

내 두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신 생선 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거예요(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쳐서 물고기 잡으러

이 노래에 나오는 낭만적인 고양이의 모습은 황인숙의 시에 등장하는 낭만 고양이와는 서로 다르지 않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에서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겨 있다. 이 고양이는 지은이의 또 다른 분신이 아니겠는가.

80년대 신춘문에 시의 특징은 이처럼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70년대의 틀을 벗어난 다양성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를 읽은 즐거움, 그리고 신춘문에 시도 '명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가 또한 80년대의 시편들이라고 본다.

이 작품은 신춘문에 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즉, 고단한 의미 유추가 아닌 즐거운 시 읽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준 작품이라고 본다.

문학의 창작과 해석은 지은이와 독자의 체험에 많이 의존하는 듯싶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데자키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홉킨스가 데리고 다니던 짐승이 생각한다. 아마도 새끼 표범이었던 것 같은데, 바람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리던 것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물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작품의 주요 캐릭터인 고양이가 황인숙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고양이를 등장시킨 유명한 작품으로 이미 1923년에 창작된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물론 이장희의 시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황인숙의 시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서로 그 태생이 다르다. 이장희의 고양이가 정적(靜的)인 캐릭터로 비유의 대상이라면, 황인숙의 캐릭터는 동적(動的)이며 행동의 주체가 된다.

여러 가지로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보수적'인 신춘문에 시에 활력과 자유,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가장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9 풍장 황동규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내(화자) 세상 뜨면(죽으면) 풍장(시체를 자연에 내버려 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례 방식, 존재의 소멸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 시켜 다오(화자의 바람,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세)
섭섭하지 않게

웁은 입은 채로(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소망함)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삶의 시간 안에 존재함, '전자시계'는 물질문명의 상징)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소망함)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풍장이 우리나라의 서남해 지방의 장례 풍습임을 보여줌)

검색이 심하면(군사 독재 시대를 지칭하는 시대적 상황)

곰소뜸에 가서(풍장이 우리나라의 서남해 지방의 장례 풍습임을 보여줌)

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풍장에 대한 염원과 준비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현실의 공간이 오히려 억압적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냄.)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의인법)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자신을 옥죄인 굴레로부터 해방됨.)

무인도(물질문명과 단절된 공간, 진정한 자유를 위한 공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계절적 배경과 축약적 이미지를 통해 '풍장'의 분위기를 나타냄.)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자신을 옥죄인 굴레로부터 해방됨.)

손목시계 부서질 때(삶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남.)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려고(시간과의 단절, 세상과의 이별 암시)

바람(생명을 순환시키는 존재)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소재)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특별히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살을 말리게 해 다오(육신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남,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세, '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물질의 구속)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물질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움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 '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존재의 소멸로 이루는 풍장의 과정

바람 이불처럼 덮고(풍장의 모습을 표현, 직유법)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세속적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의미와도 상관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화자의 소망)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풍장의 모습을 표현, 직유법)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자연 속에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줌.)

바람(생명을 소멸시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과 놀게 해 다오.('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자연과 합일로서의 풍장의 의미

- 황동규, '풍장'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긍정적, 낙관적

■ 어조 : 담담하고 비장한 어조

■ 특징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죽음에 대한 화자의 초연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제재 : 풍장

■ 주제 : 자연 속에서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

■ 구조

- 1연 : 풍장에 대한 염원과 준비
- 2연 : 존재의 소멸로 이루는 풍장의 과정
- 3연 : 자연과 합일로서의 풍장의 의미

▣ 해제

이 시는 풍장에 대한 염원과 그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비장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풍장은 우리나라 도서 지방이나 북방 유목 민족 등의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사(葬事) 방법으로, 시신을 그냥 버려두어 비바람 속에서 저절로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적 화자가 매장이나 화장과 같은 통상적인 장례 의식을 마다하고 이러한 풍장을 염원하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세속적 타락으로부터 순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연의 풍화 작용인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함께 놀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적 화자는 죽음을 인위적인 꾸밈도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시적 자아가 죽음을 가정하고, 자신이 죽은 뒤 풍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시적 자아의 당부이다. 죽음이란 단지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슬퍼할 것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신비화하거나 신성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 시적 자아가 당부하는 요체인 셈이다. 이 시에서 '바람'은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서 다시금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연의 풍화 작용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죽음에 덧붙여지는 인간적

인 의미를 철저히 거부하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저 담담하고 객관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주검이 바람 속에서 풍화되어 가는 과정마저도 '바람'과 노는 것이라고 다소 장난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풍장을 통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믿음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죽음관(觀)과 죽음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태도와 어조는 우리 시의 전통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삶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시인의 진지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9
빠삐용-영화 사회학 유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평소와 다른 장면) 표범 한 마리(화자와 대비되는 대상)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간접 화법)
수재(물난리)에 수재(獸災)(표범 한 마리)가 겹쳤다고 했지만(언어유희),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탈출한 표범과 다른 태도를 지닌 대상)의 우울한 눈빛(현실에 무기력한 모습)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표범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빠삐용이 추구했던 가치)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자유를 향한 빠삐용의 의지를 보여줌)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동물원의 우리가 대조되는 공간, 자유의 공간이지만 위험한 곳)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자유를 포기하면 안주할 수 있는 현실)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빠삐용의 친구)
로 탈출한 의지를 잃고 섬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함, 남은 세 마리의 표범을 비유)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화자도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빠삐용, 난 여기서 갑자기 심으며 살래(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드가의 태도)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성찰)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드가에게 동질감을 느낌)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시간의 경과)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자유를 택한 결과)
거봐, 결국 죽잖아!(자기 위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화, 안도감, 자기 합리화)
 ▶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떠올리는 영화 ‘빠삐용’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 현실에 갇힌 자신에 대한 성찰
 - 유하, ‘빠삐용-영화 사회학’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반성적, 성찰적, 비판적
- 정서와 어조 : 연민, 자조
- 특징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② 화자는 ‘드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③ 연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모습이 현실에 안주하는 ‘드가’의 모습과 닮았다는 인식에 이룸
 - ④ 영화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에 접목시켜 주제를 강조함

⑤ 보여주기를 통해 독자가 주제의식을 파악하게 하는 수법

■ 제재 : 자유를 찾아 탈출한 표범과 빠삐용

■ 주제 : 무기력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삶에 대한 비판과 성찰

■ 구조

- 1연 :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떠올리는 영화 '빠삐용'
- 2연 : 현실에 갇힌 자신에 대한 성찰

▣ 해제

이 시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하여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우리를 탈출하다 사살당한 표범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문득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여 어느샌가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슬픈 모습을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표범을 통해 발견한다. 자유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드가'의 모습이 결국 화자의 모습임을 깨닫는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자화상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대공원을 탈출한 표범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에서 화자가 주목한 것은 탈출한 표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 있는 표범 세 마리로, 이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자유를 잃어버린 영화 속 '드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화자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화자의 이러한 깨달음은 '텔레비전'이라는 우리에게 갇혀 자신의 생각마저 지배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 영화 사회학(film sociology)]

일반적인 사회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사회학은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한 나라의 사회 구조는 영화의 제작, 배급에서 관객의 관람행위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화사학자들은 영화의 사회적 기능을 순수한 선전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가치 확립의 기능,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영화사를 서술해 나가는데, 영화사회학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정치적 반영 및 효과와, 뉴스나 정보 등의 교육적 기능, 그리고 대중오락으로서의 기능에 관하여 연구한다. 영화사회학 연구의 기원은 발라즈의 <시각적 인간과 영화문화>로 본다. 발라즈는 이 글에서 영화에 의해 새로운 시각적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묘사하였으나,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표현이 언어로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현할 수 없었던, 따라서 좁아졌던 인간 정신의 세계를 20세기의 영화를 통해 회복,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야민은 1936년에 발표한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사진과 영화를 복제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복제예술이란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예술로, 과거 지배계급에 독점적이었던 예술의 향수를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시켰으나, 예술의 질적인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영화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사회와 인간의 사유방식에 연관시켜 설명한다. 즉, 소설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유방식에 대응하는 장르이고, 영화는 고대의 집단적 사유방식에 대응하는 장르로 보는 것이다. 근자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측면의 영화사회학은 영화산업과 그

에 관련되는 자본, 정치, 대중의 관계와 영화가 사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0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신경림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산비알(느티나무들이 나서 자라는 공간적 배경)*에 돌발에 저절로(자연의 순리대로) 나서
▶ 1행 :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적 배경
저희들끼리(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보살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함)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서로 부대끼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갈등, '-고' 반복)
시든 잎(아픔) 생기면 서로 떼어 주고(위로, '-고' 반복)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살아가면서 갈등을 견디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위로하고 돌봐 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형상화함, '-고' 반복)
끌어안기도(포용) 하고 기대기도(의지) 하고(포용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 '-고' 반복)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고' 반복)
세월에 굶고 터진 상처(아픔, 고통)는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다가(병들고 아픈 곳을 서로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는 삶의 모습)
▶ 2-13행 : 더불어 살아가는 느티나무들의 모습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것들, 삶의 지혜 등)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의인화)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음성 상징어)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환상적이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배경)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인간이 사는 곳)에 뿌리는(좋은 것을 공유하려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복수형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모습 강조, 명사형 종결로 여운 형성)
▶ 14-20행 :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산비알 : '산비탈'의 방언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유적, 예찬적, 관조적
- 특징
 - ① 시적 대상을 인격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줌
 - ② 느티나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열거하며 시상을 전개함.
 - ③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함.
 - ④ '-고', '-는' 등의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림.

- 시적 화자 : 서정적 자아(나 : 느티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이)
- 화자의 정서(태도) : 동네 느티나무들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 시적 상황 :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수용함.
- 제재 :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주제 : 공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
- 구조
 - 1행 :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적 배경
 - 2-13행 : 더불어 살아가는 느티나무들의 모습
 - 14-20행 :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느티나무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에서 발견하는 서로 의존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느티나무들은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픈 곳을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며, 늙어서는 '세월에 굼고 터진 상처'를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한다. 또한 느티나무들은 오랜 삶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온 고을'에 뿌려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를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공생하고 나누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0 들길에서 마을로 고재종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해거름(시간적 배경), 들길(공간적 배경)에 선다. 기업기업 산 그림자 내려오고(해가 지는 모습) 길옆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화자의 시선 이동) 올라가 수정 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자연의 모순 것에 의미가 있음)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썩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썩독새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벼들은 쭈쭈쭈쭈(의태어를 통해 생동감과 운율감을 드러냄)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삼을 씻는 노인(화자의 시선 이동),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노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붉새가 북새질을 치니('붉새'는 '노을'의 방언. 붉게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내일도 짹짹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강한 생명력),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감각적 이미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선명히 드러냄.).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화자의 시선 이동)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저녁을 준비하는 농촌의 모습)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후각적 심상)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화자의 시선 이동)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청각화)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썩국새 울음(청각적 심상)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썩국새의 울음이 화자의 서러움을 불러일으킴) 하지만 이제 하루 어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하루를 보람 있게 마무리한 후의 여유를 느끼고자 함.)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시간이 흘러 저녁이 깊어짐.)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 인생은 스스로가 만들어 감.)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감각적 이미지)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려.(들길에서 마을로 걸어가며 느낀 정서가 인생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음. 화자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 핵심 정리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서정적, 산문적
- 어조 :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
- 특징
 - ① 산문적 진술로 경치와 서정을 담담하게 서술함.
 - ②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 ③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들판과 농촌 마을의 모습을 표현함.
- 제재 : 농촌 마을
- 주제 :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인생에 대한 성찰
- 구성

- 해거름~자란다 : 망초꽃을 보며 벼들이 자라나는 생명력을 느낌
- 이때쯤~푸르러진다 : 삽을 씻는 노인을 보며 짙은 내일을 예상함
- 이쯤에서~고즈넉하겠다 : 마을 쪽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를 보며 뿌듯함을 느낌
- 길은~밝히리 : 길은 어디서 열리고 노래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함

■ 해제

이 시는 들길과 마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농촌 사회가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향토성과 서정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시선 이동을 중심으로 '들길'에서 '마을'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들길의 풍경과 벼가 푸르러 가는 들녘의 생명력,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화자의 시선은 노인에게로 이동하여 하루의 농사일을 마무리한 노인과 택배기 한 잔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심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원적 공간은 향토 문화의 보고 같은 곳으로, 시인은 이를 단순히 경관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경관 속에 온전히 담겨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우리네 삶의 한 전형의 창조를 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날이 저물고 있는 '들길'의 풍경을 묘사하고, 농촌 마을의 전원적이고 토속적인 정취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단순히 들길이 저물고 있다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망초꽃'들이 흔들리는 모습과 해가 저물어 점 속에 사라지는 모습 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묘사하여 마치 실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어지는 농촌 마을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삽을 씻는 노인'과 '벼들의 모습', '또랑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시인은 시각, 청각, 후각 등 생생한 감각을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저녁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는 산문적 울조를 가지고 있지만 군데군데 사용한 반점과 온점을 통해 맺고 이어짐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러한 산문의 형식은 운문 형식에 비해 저녁 풍경의 모습을 담담히 담아내고 나열하는데 더 효과적인 면도 있다.

■ 산문시

형식상으로는 거의 산문이면서 내용으로는 시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시의 한 종류로서, 운(韻)이나 리듬을 갖지 않는 산문체의 서정시를 말한다. 정형시처럼 외재율을 갖거나 혹은 자유시처럼 내재율을 현저히 형성하고 있지 않으나 미묘하고 독특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자유시와 행과 연의 구분을 통해 내용을 분절하고 음운을 획득하는 것에 비하여 산문시는 대략 행과 연의 구분 없이 줄글로 써졌다는 데 그 형태상의 특성이 있다. 20세기 초 한국 시에서는 한용운의 시들에서 그 형태가 많이 보이며 현재에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허수경의 '홀로 가는 먼 집' 등 다양한 작품들이 산문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보들레르, 투르게네프 등이 산문 시인으로 유명하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히덕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복숭아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 화자가 가졌던 편견과 오해, 경어체 사용, 고백적 어조)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복숭아나무에 대해 느꼈던 화자의 거리감)
멀리로 멀리로만(반복, 대상에 대한 거리감 강조) 지나쳤을 뿐입니다(선입견으로 인한 화자의 행동)
흰 꽃과 분홍 꽃(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 사이에 수천의 빛깔(복숭아나무의 본질적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화자의 깨달음, 인식의 변화)
눈부셔 눈부셔(반복,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것을 강조) 알았습니다(반복, 화자의 깨달음 강조)
피우고 싶은 꽃빛(꿈)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복숭아나무를 이해하려고 함)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꿈만 좇느라)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꿈이 있어서, '수천의 빛깔'을 지닌 복숭아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됨, 대상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함, 거리감이 사라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복숭아나무를 이해하려는 화자의 태도 변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됨,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
 ▶ 복숭아나무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잎이 떨어진 복숭아나무, 의인법)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화자와 복숭아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교감을 이루는 공간)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대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도치법)
 ▶ 복숭아나무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 나히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비유적, 여성적
- 어조 : 여성적이고 독백적 어조
- 특징
 - ① 경어체 사용으로 고백적인 어조를 유지함.
 - ②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로 표출.
 - ③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타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함.
 - ④ 복숭아나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의미 체계를 획득.
- 제재 : 복숭아나무

■ 주제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 구조

- 1연 : 복숭아나무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
- 2연 : 복숭아나무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나무라는 대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처음에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나 많은 마음을 가져 사람들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지나치기만 한다. 하지만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후 그 그늘 속에 들어가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데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늘은 화자와 대상인 복숭아나무 사이의 완벽한 이해와 조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라는 텍스트에 대한 화자의 해석 과정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지나치기만 한다. 둘 사이의 만남이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겹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화자에게 그늘은 더 이상 이질적인 대상이 아니며 그 그늘 속에 들어가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아의 질적인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에서 복숭아나무는 어떤 사람과 비유되어 있다. 그것은 첫 행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물이나 복숭아나무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 이야기가 된다. 화자는 복숭아나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 색깔이 아닌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마도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즉 나무 그늘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번덕스러움과 까다로움을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그 사람과 멀리 지나치기만 했을 뿐 어떤 마음의 교류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눈부신 빛깔 때문에 그 나무가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그 수천의 색깔들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다.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은 화자의 선입견에 의한 해석이다. 복숭아나무의 눈부신 빛깔을 보는 순간 화자는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복숭아나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복숭아나무가 수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피우고 싶은 빛깔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둘 사이의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화자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그 마음을 읽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멀기만 했던 대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흩어진 꽃잎들", "저녁이 오는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의 인물은 청춘을 다 보낸 노년의 인물로 형상화된다. 시인은 그 그늘 아래 쉬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본다.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늘은 이제 즉 화자와 복숭아나무로 형상화된 인물 사이의 완벽한 이해와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1
등꽃 아래서 송수권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할껏 구름의 나들이(의인법)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등나무는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비유함, 등나무를 관찰하는 데서 시상 전개가 시작됨.)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독자의 호기심 자극)
철없이 주걱주걱(음성 상징어) 흐르던 눈물(과거형으로 과거 자신의 철없이 삶을 대하던 태도)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직유법) 소리를 내고(삶의 비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등꽃의 색깔 → 슬픔과 기쁨이 한데 뒤섞임)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직유법)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등나무의 줄기가 여러 가닥 꼬여 있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음을 깨달음, 추상적 관념인 감정을 시각화함.)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깨달음의 매개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등꽃 송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음)
 ▶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조화와 화해를 이룸)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등꽃, 삶의 아름다운 결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등나무 줄기가 꼬여 동치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 내가 조화롭게 이루는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게 됨.)
 ▶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활유법)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등꽃 송이를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아름다운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 화자가 발견한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비유적, 성찰적
- 정서 및 태도 : 교훈적
- 특징

- ① 등꽃 송이를 보며 얻게 된 화자의 정서와 깨달음을 노래함.
- ②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냄.
- ③ 자연물을 활용해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함.
- ④ 다양한 심상을 통해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함.
- ⑤ 의태어와 비유법을 사용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함.
- ⑥ 설의법을 통해 화자가 느낀 삶의 의미를 강조함.

■ 제재 : 등나무와 등꽃

■ 주제 :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 구조

- 1연 :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 2연 :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 3연 : 화자가 발견한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등나무'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어느 봄날 넉쿨져 있는 등나무의 '등꽃송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또한, 흔들리는 등꽃송이에서 눈물이 부서진 구슬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진 지등(紙燈)의 불빛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등나무의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